

빅 사이즈 브라지어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C컵 이상을 중심으로-

김남순 · 도월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Wearing Conditions of Big Size Brassiere for the Women with Bigger Than C Cup Size

Nam-Soon Kim · Wol-Hee Do[†]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6. 1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issatisfaction and size appropriateness of the women with big breast for design the high functional big size brassie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9 women(between the ages of 20 and 39) residing in Gwang-ju using a questionnaire to purchase, wearing comfort, dissatisfaction of the size, wire and the pad of the big size brassie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Chi-square test, t-test and ANOVA using statistical program SPSS 12.0.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Seven-two-point-two percent of the women with big breast more than C cup size polled said they had difficulty in looking for the suitable size of the brassiere and they usually wore the smaller size than the their own size. As a result, they felt inconvenience for the discord with the nipples and lack of the shape revision.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reast size and Rohrer's index showed low correlation. 3) After dividing all respondents for this research into categories of the group of more than C cup and less than B cup the differences in responses were compared. The dissatisfaction with brassier were 'discord of cup size', 'pain due to the wire' and 'unnatural breast shape' in the group of more than C cup, compared to 'discord of cup size' and 'deformation of the wire and pad' in the group of less than B cup.

Key words: Big size brassiere, Wearing comfort, Size, Dissatisfaction; 빅 사이즈 브라지어, 착용감, 사이즈, 불만족도

I. 서 론

현대 여성들의 경우 과도한 다이어트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마른체형을 희망하면서도 빈약한 가슴보다는 풍만한 가슴을 갖기 위해 유방확대 수술이나 브라지어에 보조물을 넣는 방법 등으로 S라인

의 몸매를 갖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너무 큰 가슴으로 인해 고민하는 여성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자원부의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중 3.5%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맞지 않는 속옷을 입거나 수입품을 착용하고 있는 걸로 보고되었다(“몸에 안맞는 브라지어”, 2006). 또한 최근 한국 여성의 가슴 체형이 점차 서구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국내의 언더

[†]Corresponding author

E-mail: whdo@chonnam.ac.kr

웨어(under wear)회사에서 25~32세 고객을 대상으로 3만 5천여 건의 브래지어 구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 여성의 브래지어 컵 사이즈는 커지고 젓가슴 아래둘레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 가슴 체형 서구형으로”, 2006). 그러나 현재 브래지어 생산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의 본격적인 생산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단일 아이템별 전문화, 최고급 브랜드 육성, 수입완제품과 라이센스 브랜드의 확보, 연령층의 급속한 세분화로 인한 브랜드 차별화 등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체형이 자연적, 환경적 여건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변함에도 불구하고(최미성, 김옥진, 1993) 치수조합에 따른 비례에 의해 제작되고 있어 일반매장에서는 없거나 있다고 해도 한 두 개만 있을 뿐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비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도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본인의 가슴 사이즈와 다르게 작은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착용함으로써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버드대 연구진이 국제 암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B컵이나 D컵 이상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정상체중의 날씬한 여성(BMI 25 이하)들이 과체중(BMI 25 초과)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빅 사이즈 가슴의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가슴 큰 날씬女, 유방암 잘 걸린다”, 2005).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C컵부터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음을 감안하여 C컵 이상을 빅 사이즈로 정의하고, C컵 이상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빅 사이즈 브래지어 구매현황과 착용실태 및 이에 따른 불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브래지어 치수, 와이어, 패드의 문제점을 B컵 이하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성인여성들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브래지어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빅 사이즈 속옷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및 광주시내 거주하는 20~30대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평소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구매 및 착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10월~2007년 1월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C컵 이상 159부의 설문지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것을 제외한 126부와 B컵 이하 62부 중 무성의한 응답 9부를 제외한 53부로 총 17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6문항, 브래지어 구입 및 착용실태 5문항, 착용시 부위별 불만족도 23문항, 브래지어 불만족 요인 3문항, 개선점 1문항,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 각 문항에 SPSS 12.0 Package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고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젓가슴 아래둘레와 컵 사이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컵의 크기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χ^2 검증, t-test, ANOVA(사후검정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빅 사이즈 브래지어 구입과 착용실태 및 불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응답자들의 신체 관련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 20대는 83명, 30대 이상은 43명으로 총 126명이었고 20대의 평균 신장은 162.13cm, 평균 체중은 58.23kg, 로려지수 1.36으로 나타났고, 30대 이상의 평균 신장은 161.02cm, 평균 체중은 59.7kg, 로려지수 1.44의 지수치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연령대별 신체치수

연령 문항	20대(n=83)	30대(n=43)	Total(n=126)
신장(cm)	162.13	161.02	161.75
체중(kg)	58.23	59.7	58.73
로려지수	1.36	1.44	1.39

<표 2> 빅 사이즈 브래지어 구입문항에 관한 조사결과 (n=126)

문항		빈도(명)	백분율(%)
측정경험	있 다	112	88.9
	없 다	14	11.1
	Total	126	100
일반매장에서 적합한 브래지어 구매경험	있 다	73	57.9
	없 다	53	42.1
	Total	126	100
브래지어 구입장소	백화점	42	33.3
	대형마트	4	3.2
	속옷전문매장	37	29.4
	수입품점	3	2.4
	인터넷	23	18.3
	홈쇼핑	11	8.7
	기 타	6	4.8
	Total	126	100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요인	사이즈	75	59.5
	디자인	5	4.0
	색 상	0	0
	가 격	4	3.2
	브랜드	0	0
	소재/촉감	3	2.4
	착용시 가슴형태	38	30.2
	기 타	1	0.8
Total	126	100	

빅 사이즈 브래지어 구입문항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판매원에 의해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시 초기 구입제품에서 사이즈를 변경하여 적합한 사이즈로의 교환과 판매자와의 상담을 통해 치수를 변경한 간접측정에 의해 브래지어 사이즈를 측정할 경험이 있는 것(88.9%)으로 나타났다. 일반매장에서 본인 사이즈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구입해 본 경험을 묻는 문항에 없다(42.1%)고 응답하였다. 브래지어를 구입하는 장소는 백화점(33.3%), 속옷전문매장(29.4%), 인터넷(18.3%) 순으로 나타났고, 구입시 중요요인으로는 사이즈(59.5%), 착용시 가슴형태(30.2%)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디자인(4.0%), 가격(3.2%), 소재/촉감(2.4%)의 낮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즈의 개수가 소량이라도 구비되어있고 사이즈 측정 후 구입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속옷전문매장을 많이 이용하며 디자인이나 색상, 가격보다는 본인의 체형에 적합한 사이즈를 우선시하여 구매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디자인이나 가격이 좀 더 다양한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빅 사이즈 브래지어의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브래지어의 착용시간은

<표 3> 빅 사이즈 브래지어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n=126)

문항		빈도(명)	백분율(%)
브래지어 착용시간	하루 종일	48	38.1
	잠자기 전까지	60	47.6
	외출시에만	18	14.3
	Total	126	100
치수부적합 브래지어 착용이유	치수체계를 몰라서	15	11.9
	적합치수 구입난이	91	72.2
	치수측정 없이 구입	13	10.3
	가슴 형태를 보정하기위해	5	4.0
	기타	2	1.6
Total	126	100	

‘잠자기 전까지’(47.6%), ‘하루 종일’(38.1%), ‘외출시에만’(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수가 적합하지 않은 브래지어를 착용해본 경험에 대해 이유를 조사한 결과로 ‘적합한 치수를 구하기가 어려워’ 항목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치수체계를 몰라서’, ‘치수측정 없이 구입해서’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나 다양한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생산하여 판매해야할 뿐 아니라 브래지어 치수체계와 본인 치수의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빅 사이즈 브래지어 착용시 불만족도에 관한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치수가 잘 맞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약간 그러함’ 31.7%로 나타났고 ‘적당한 치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항목에서는 85.6%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여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컵의 크기가 가슴보다 작아 불편하다’는 항목은 ‘약간 그러함’ 36.5%의 응답을 보였으며 ‘유두점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는 67.4%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보여 적합하지 못한 치수를 착용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받쳐주고 모아주고 밀가슴선을 정리해주는 기능부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와이어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항목에 34.1%가 ‘보통’이고, 28.6%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아래의 와이어에 대한 불만족항목과 비교해 유추해보면 비만 가슴을 지탱해주는 와이어가 없는 브래지어보다는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가 편하게 느낌을 알 수 있다.

‘어깨끈이 자꾸 흘러 내린다’는 항목에서 34.9%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어깨끈의 조절 혹은 이물감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5.2%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고태희(2000)의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비만

<표 4> 빅 사이즈 브래지어 착용 불만족도 결과분석

(n=126)

척도분항	매우 그러하다	약간 그러하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치수가 잘 맞지 않는다	14(11.1)	40(31.7)	29(23.0)	29(23.0)	14(11.1)	2.9
적당한 치수를 구하기 어렵다	27(21.4)	56(44.4)	25(19.8)	13(10.3)	5(4.0)	2.3
컵의 크기가 가슴보다 작아 불편하다	23(18.3)	46(36.5)	27(21.4)	23(18.3)	7(5.6)	2.6
유두점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9(7.1)	41(32.5)	44(34.9)	27(21.4)	5(4.0)	2.8
잘 받쳐주지 못한다	14(11.1)	31(24.6)	45(35.7)	25(19.8)	11(8.7)	2.9
중양으로 잘 모아주지 못한다	11(8.7)	35(27.8)	42(33.3)	29(23.0)	9(7.1)	2.9
밀가슴선 정리가 잘되지 않는다	10(7.9)	28(22.2)	47(37.3)	35(27.8)	6(4.8)	3.0
와이어에 대해 불만족한다	10(7.9)	24(19.0)	43(34.1)	36(28.6)	13(10.3)	3.1
어깨끈이 자꾸 흘러 내린다	16(12.7)	22(17.5)	29(23.0)	44(34.9)	15(11.9)	3.2
어깨끈 조절축에 이물감을 느낀다	6(4.8)	28(22.2)	23(18.3)	57(45.2)	12(9.5)	3.3
옆날개가 말려 올라간다	4(3.2)	11(8.7)	24(19.6)	54(42.9)	33(26.2)	3.8
옆날개가 좁아 불편하다	6(4.8)	26(20.6)	35(27.8)	38(30.2)	21(16.7)	3.3
앞중심이 들뜬다	21(16.7)	36(28.6)	30(23.8)	32(25.4)	7(5.6)	2.8
앞중심이 너무 눌러 답답하다	5(4.0)	16(12.7)	39(31.0)	53(42.1)	13(10.3)	3.4
뒷어밌 혹방식이 불편하다	1(0.8)	11(8.7)	21(16.7)	46(36.5)	47(37.3)	4.0
뒤어밌 치수 조절 개수가 다양하지 않다	30(23.8)	38(30.2)	31(24.6)	24(19.0)	3(2.4)	2.5
라벨이 가렵고 따끔거린다	15(11.9)	40(31.7)	34(27.0)	26(20.6)	11(8.7)	2.8
활동시 밀가슴이 따라 올라간다	10(7.9)	42(33.3)	29(23.0)	30(23.8)	15(11.9)	3.0
흔들림 방지 효과가 나쁘다	15(11.9)	47(37.3)	37(29.4)	20(15.9)	7(5.6)	2.7
착용 후 가슴 형태에 불만족한다	2(1.6)	28(22.2)	38(30.2)	49(38.9)	9(7.1)	3.3
시판 브래지어보다 내 가슴에 잘 맞는 브래지어 필요성을 느낀다	88(69.8)	22(17.5)	15(11.9)	0(0)	1(0.8)	1.4

*굵은 글씨체 부분은 평균 3점 이하의 불만족도가 높은 항목을 표시함.

체형의 여성들에 있어 어깨끈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응답과 차이를 보인다. ‘옆날개가 말려 올라가거나 좁아 불편하다’는 응답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 또한 비만여성들의 불만족 요인일수는 있으나 가슴이 큰 여성의 불만족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중심이 들뜬다’는 문항에서는 ‘약간 그러함’이 28.6%, ‘별로 그렇지 않음’이 25.4%, ‘보통’이 23.8%로 응답하였으며 ‘너무 눌러 답답함’을 묻는 문항에서는 42.1%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비만도가 높은 체형에서 앞중심부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강여선(1991)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뒤어밌이 불편한지에 대한 응답에는 ‘그렇지 않다’가 73.8%의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고 뒤어밌 치수 조절 개수가 다양하지 않다는 문항에는 54.0%가 ‘그렇

다’는 응답을 하였고 체형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구입하기 어렵고 적합하지 않은 브래지어의 치수를 혹은 조절하여 착용함을 예상할 수 있다. 라벨이 가렵고 따끔거린다는 문항에는 31.7%가 ‘약간 그러하다’고 나타났고, ‘활동시 밀가슴이 따라 올라가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약간 그러함’이 33.3%, ‘별로 그렇지 않음’이 23.8%의 응답을 하였으며 ‘흔들림 방지 효과가 나쁘다’에 대해서는 37.3%가 ‘약간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 ‘착용 후 가슴 형태에 불만족한다’는 항목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가 38.9%, ‘보통이다’가 30.2%로 응답하였으며 ‘시판 브래지어보다 내 가슴에 잘 맞는 브래지어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질문에 전체 87.3%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어 현재 브래지어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어 자신의 체형에 보다 적합한 브래지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래지어 치수, 와이어, 패드에 대한 불만족 요인의

결과분석은 <표 5>, <표 6>, <표 7>과 같다. 브래지어 치수의 불만족 요인을 보면 ‘컵 사이즈의 불일치’(38.1%), ‘치수 없어 기능성 브래지어 착용’(22.2%)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젓가슴 아래둘레의 불일치’(4.8%)로 가장 낮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고태희(2000)의 연구결과에서 비만여성의 브래지어 착용 실태 조사연구에서 ‘컵 치수가 맞지 않기 때문’, ‘젓가슴 아래둘레가 맞지 않기 때문’의 순으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슴만 비만이고 젓가슴 아래둘레는 비만이 아닌 여성들로 젓가슴 아래둘레에 적합한 컵의 크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 적합하지 않은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컵의 크기의 폭을

다양하게 넓혀 생산해야함을 알 수 있다.

와이어의 불만족 요인을 보면 ‘통증 느껴짐’(39.7%), ‘형태 쉽게 변형됨’(22.2%), ‘위치 부적절함’(20.6%), ‘가슴을 제대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16.7%) 순으로 나타났고 패드의 불만족 요인은 ‘가슴 모양이 부자연스러움’(38.9%), ‘형태가 쉽게 변형됨’(29.4%), ‘위치 부적절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함’과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이 각각 11.1%로 같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브래지어 제조시 개선점에 대한 결과분석은 <표 8>에서 보여진 것과 같다. ‘다양한 사이즈 개발’(34.0%), ‘가슴라인을 잡아주는 기능성’(23.2%), ‘디자인 및 색상 다양’(14.8%), ‘컵의 형태 안정성/내구성’(11.2%) 순으로 응답을 보여 임지영(2004)의 연구에서 다양한 사이즈 개발, 소재 개선, 가격 개선이라는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컵의 치수가 큰 여성들의 경우 치수조합으로 제작되는 패턴이 아닌 젓가슴 아래둘레에 비해 가슴이 큰 체형들만을 위한 치수체계와 패턴을 개발해야함과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를 제시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표 5>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불만족 요인 결과분석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젓가슴 아래둘레의 불일치	6	4.8
컵 사이즈의 불일치	48	38.1
치수가 없어 주문하여 구매한 경험	9	7.1
착용 후 가슴 형태 불만족	18	14.3
다양하지 않은 디자인	17	13.5
치수 없어 기능성 브래지어 착용	28	22.2
Total	126	100

<표 6> 와이어에 대한 불만족 요인 결과분석 (n=126)

항 목	빈도(명)	백분율(%)
형태가 쉽게 변형됨	28	22.2
위치 부적절함	26	20.6
통증 느껴짐	50	39.7
가슴을 제대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	21	16.7
기타	1	0.8
Total	126	100

<표 7> 브래지어 패드에 대한 불만족 요인 결과분석 (n=126)

항 목	빈도(명)	백분율(%)
가슴 모양이 부자연스러움	49	38.9
위치 부적절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함	14	11.1
형태가 쉽게 변형됨	37	29.4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	10	7.9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	14	11.1
기타	2	1.6
Total	126	100

2. 빅 사이즈 브래지어 구입시 치수측정 전후의 차이 비교

설문지에 응답한 126명의 젓가슴 아래둘레, 컵의 크기, 비만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슴의 크기와 비만도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비만도와 젓가슴 아래둘레는 유의하지만 브래지어 컵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8> 브래지어 제조시 개선점에 대한 결과분석 (n=126)

항 목	백분율(%)
다양한 사이즈 개발	34.0
소재 개선	2.0
가격 개선	8.8
치수 정확성	5.6
컵의 형태 안정성/내구성	11.2
디자인 및 색상 다양	14.8
촉감 개선	0.4
가슴라인을 잡아주는 기능성	23.2
Total	100

판매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측정의 경험이 있고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측정 후 젓가슴 아래둘레와 컵 크기간의 치수 변화를 분석하여 <표 10>과 <표 11>로 나타내었고 <표 12>는 젓가

<표 9> 비만도, 젓가슴 아래둘레, 컵 크기간의 상관관계 (n=126)

항 목	비만도	젓가슴 아래둘레	컵의 크기
비만도	1		
젓가슴 아래둘레	.741**	1	
컵의 크기	.074	-.053	1

*p<.05, **p<.01, ***p<.001(이하 모든 표에서 적용)

<표 10> 가슴 치수측정 후 치수변화 여부 (n=112)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변화있다	64	57.1
변화없다	48	42.9
Total	112	100

<표 11> 가슴 치수측정 후 젓가슴 아래둘레와 컵 크기간의 전, 후 치수변화 (n=112)

항 목	측정 전	측정 후	평균차	t-test
젓가슴 아래둘레	78.26	76.43	1.830	5.360***
컵의 크기	4.04	4.72	-.688	-6.938***

슴 아래둘레와 컵의 크기를 측정 전과 후로 분리한 표이다. <표 10>을 살펴보면 전체 126명 중 112명이 측정의 경험이 있으며 측정경험자들 중 57.1%가 치수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과 <표 12>에서 변화내용을 보면 젓가슴 아래둘레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컵의 크기는 커진 것으로 보아 가슴이 큰 경우 컵의 치수보다는 젓가슴 아래둘레의 크기가 큰 제품을 구입해 착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판매하는 사이즈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측정 전까지 본인의 치수에 대한 인식이나 브래지어 치수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못된 치수의 브래지어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의 치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3. 컵 크기에 따른 브래지어 착용 불만족도

컵의 크기별 브래지어 착용 불만족도에 대한 평가분석을 위해 컵 크기별로 평균을 구하여 차이를 비교하였고, 컵의 크기간의 유의차를 검증하기 위해 ANOVA와 Duncan-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컵의 크기별 불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총 21항목에서 12항목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전체항목 중 7항목에서 컵의 크기별 유의한

<표 12> 측정 전, 후의 젓가슴 아래둘레와 컵 크기의 교차표

항 목 \ 사이즈		B컵	C컵	D컵	E컵	F컵	G컵	Total
측정 전	70			7(6.3)	11(9.8)	1(0.9)		19(17.0)
	75	1(0.9)	2(1.8)	15(13.4)	15(13.4)	3(2.7)	1(0.9)	37(33.0)
	80	5(4.5)	11(9.8)	8(7.1)	5(4.5)	1(0.9)	1(0.9)	31(27.7)
	85	3(2.7)	7(6.3)	5(4.5)		1(0.9)		16(14.3)
	90	5(4.5)			1(0.9)	1(0.9)		7(6.3)
	95		1(0.9)		1(0.9)			2(1.8)
	Total	14(12.5)	21(18.8)	35(31.3)	33(29.5)	7(6.3)	2(1.8)	112(100)
측정 후	65			1(0.9)				1(0.9)
	70			8(7.1)	12(10.7)	4(3.6)	1(0.9)	25(22.3)
	75		1(0.9)	21(18.8)	18(16.1)	5(4.5)	2(1.8)	47(42.0)
	80		2(1.8)	9(8.0)	8(7.1)	5(4.5)	1(0.9)	25(22.3)
	85		2(1.8)	5(4.5)	2(1.8)	1(0.9)		10(8.9)
	90		1(0.9)			1(0.9)		2(1.8)
	Total		6(5.4)	45(40.2)	40(35.7)	16(14.3)	5(4.5)	112(100)

<표 13> 컵 크기별 브래지어 착용 불만족도

(n=179)

문항	컵의 크기	평균						전체 평균	F값	
		A	B	C	D	E	F			G
치수가 잘 맞지 않는다		2.95	3.50	3.25	2.98	2.76	3.06	2.60	2.97	0.94
적당한 치수를 구하기 어렵다		2.85b	3.25c	2.58b	2.45b	2.18b	2.29b	1.60a	2.49	3.52**
컵의 크기가 가슴보다 작아 불편하다		3.90a	3.83a	2.83b	2.57b	2.56b	2.71b	1.80c	2.95	9.02***
유두점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2.90	3.42	2.83	2.82	3.04	2.41	2.40	2.88	1.89
잘 받쳐주지 못한다		3.26b	4.00b	3.33b	3.08a	2.71a	2.82a	2.60a	3.07	3.12**
중양으로 잘 모아주지 못한다		2.90	3.42	3.17	3.10	2.71	2.76	3.00	2.95	1.29
밀가슴선 정리가 잘되지 않는다		3.33	3.67	3.17	3.08	2.89	3.12	2.40	3.12	1.80
와이어에 대해 불만족한다		3.10	3.92	3.00	3.24	3.11	3.18	2.20	3.17	1.83
어깨끈이 자꾸 흘러 내린다		2.67a	2.58a	2.75a	2.98b	3.16b	3.82b	4.00c	3.02	3.12*
어깨끈 조절축에 이불감을 느낀다		3.31	3.58	3.75	3.20	3.51	3.29	2.60	3.36	1.19
옆날개가 말려 올라간다		3.85	4.17	3.25	3.86	3.80	4.18	3.20	3.83	1.67
옆날개가 좁아 불편하다		3.69	4.00	3.17	3.20	3.47	3.65	3.20	3.47	1.64
앞중심이 들뜬다		3.23	3.17	3.17	2.63	2.76	3.00	2.00	2.88	1.92
앞중심이 너무 눌러 답답하다		3.85a	4.17b	3.42a	3.33a	3.56a	3.35a	3.60a	3.57	2.33*
뒷여밈 폭방식이 불편하다		4.08	4.33	3.58	3.96	4.02	4.18	4.00	4.02	0.72
뒤여밈 치수 조절 개수가 다양하지 않다		2.97b	2.75b	2.92b	2.43a	2.64b	1.76a	2.20a	2.59	2.99**
라벨이 가렵고 따끔거린다		2.97	3.08	3.58	2.73	2.98	2.65	1.80	2.89	1.79
활동시 밀가슴이 따라 올라간다		2.79	3.58	3.00	3.02	2.91	3.12	2.80	2.98	0.79
흔들림 방지 효과가 나쁘다		2.90	3.00	2.42	2.76	2.40	3.12	2.80	2.73	1.71
착용 후 가슴 형태에 불만족한다		2.74	2.92	2.67	2.73	2.78	2.47	3.20	2.74	0.52
시판 브래지어보다 내 가슴에 잘 맞는 브래지어 필요성을 느낀다		2.05b	2.50b	1.67a	1.43a	1.40a	1.41a	1.60a	1.65	4.82***

던컨테스트 결과 $p \leq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 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a>b>c). 굵은 글씨체 부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표시함.

차이가 나타났다. 불만족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수가 잘 맞지 않는다’, ‘중양으로 잘 모아주지 못한다’, ‘뒤여밈 치수 조절 개수가 다양하지 않다’, ‘활동시 밀가슴이 따라 올라간다’, ‘흔들림 방지 효과가 나쁘다’ 항목에서는 컵의 크기에 상관없이 평균 3점 이하의 불만족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유두점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는 전체 2.88의 불만족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F컵과 G컵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중심이 들뜬다’는 항목에서 또한 전체 2.88의 불만족도를 나타내며 특히 G컵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다른 사이즈와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라벨이 가렵고 따끔거린다’는 항목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착용 후 가슴 형태에 불만족한다’ 항목에서는 G컵의 경우만 3.2의 평균 점수로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G컵의 경우 오히려

작은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착용함으로써 좀더 작아 보이는 효과에 의해 만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적당한 치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항목에서는 B컵을 제외한 모든 컵에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컵의 크기가 가슴보다 작아 불편하다’는 항목에서는 A컵과 B컵을 제외한 나머지 컵에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판 브래지어보다 내 가슴에 잘 맞는 브래지어 필요성을 느낀다’ 항목에서는 평균 1.65로 가장 큰 불만족도가 나타났으며 C컵 이상의 사이즈에서 2.0 이하의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대부분의 성인 여성들이 본인의 체형에 알맞는 브래지어의 필요성이 절실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을 살펴보면, ‘적당한 치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항목에서 B컵과 A, C, D, E, F컵과 G컵의 세 집단으로 나뉘어 유의한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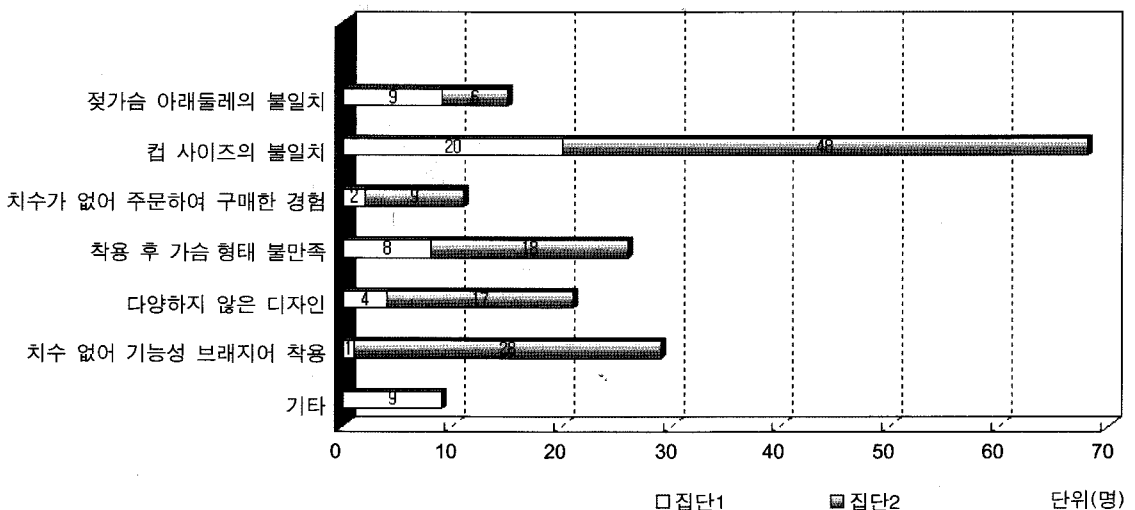
나타내었는데 이는 한국 여성의 가슴 체형이 점점 서구형으로 변하고 한국표준체형에서 조사된 결과에서도 B컵이 한국 여성의 2, 30대 표준체형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생산비율도 늘어나 B컵의 착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컵의 크기가 가슴보다 작아 불편하다’는 항목에서는 A, B컵과 C, D, E, F컵, G컵의 세 분류로 나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컵의 사이즈가 클수록 불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잘 받쳐주지 못한다’는 항목에서는 C컵 이하와 D컵 이상으로 나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컵이 클수록 가슴부피 또한 증가함으로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패드나 와이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짐으로 생기는 결과로 판단되어진다. ‘어깨끈이 자꾸 흘러 내린다’는 항목에서는 A, B, C컵과 D, E, F컵과 G컵의 세 분류로 나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어깨끈 조절축에 이물감을 느낀다’는 항목의 응답에서 G컵의 불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슴의 부피로 인해 어깨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짐으로 불만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어깨끈이 흘러내리는 불편함은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되어 컵의 크기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중심이 너무 눌러 답답하다’는 항목에서 B컵과 나머지 컵 사이즈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모든 컵 사이즈에서 불만족도가 높지는 않으나 다른 컵에 비해 B컵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B컵에 적합한 브래지어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뒤여밈 치수 조절 개수

가 다양하지 않다’는 항목에서는 A, B, C, E컵과 D, F, G컵으로 나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컵의 사이즈가 클수록 불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컵의 사이즈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본인들의 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올바른 사이즈를 선택함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로 간주되어 진다. ‘시판 브래지어보다 내 가슴에 잘 맞는 브래지어 필요성을 느낀다’는 항목에서 B컵 이하와 C컵 이상으로 나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C컵 이상을 착용하는 여성들에게도 폭 넓은 선택으로 본인의 몸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착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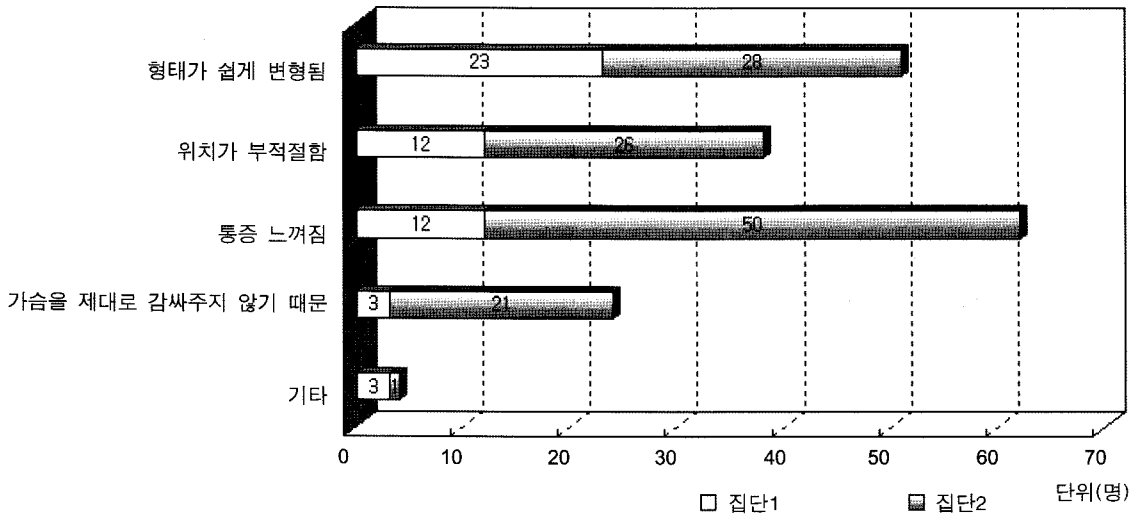
가슴 크기에 따른 불만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B컵을 기준으로 B컵 이하집단을 집단1, C컵 이상의 집단을 집단2로 나누어 브래지어 치수, 와이어, 패드의 불만족도를 교차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불만족을 보면 ‘컵 사이즈의 불일치’(38.0%), ‘치수가 없어 기능성 브래지어 착용’(16.2%), ‘착용 후 가슴 형태 만족하지 않음’(14.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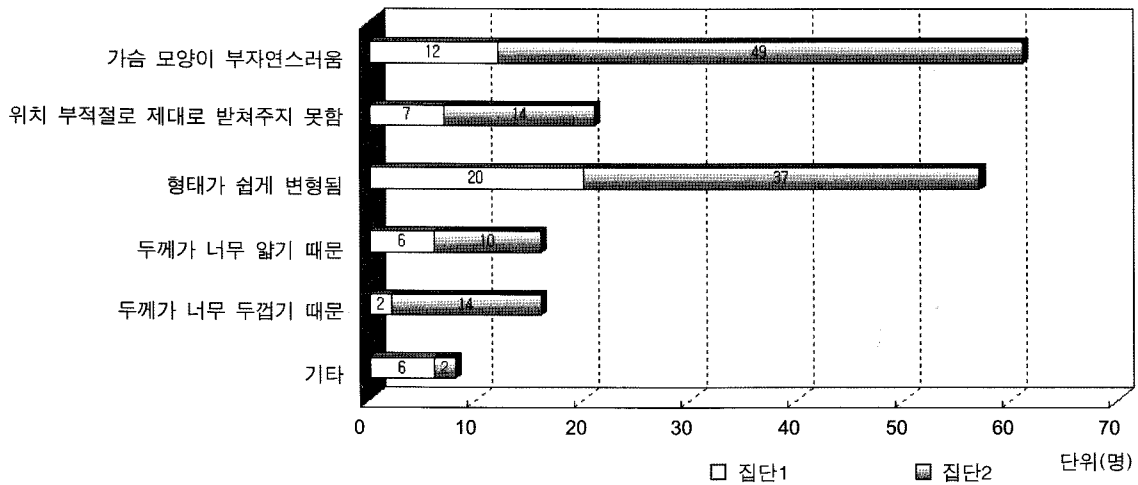
집단별로 살펴보면 집단1의 경우 ‘컵 사이즈의 불일치’(37.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젓가슴 아래 둘레의 불일치’, ‘기타’ 항목이 17.0%로 같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집단 2의 경우는 ‘컵 사이즈의 불일치’



<그림 1> 집단별 브래지어 치수 불만족에 대한 교차분석



<그림 2> 집단별 와이어의 불만족에 대한 교차분석



<그림 3> 집단별 브래지어 패드 불만족에 대한 교차분석

(38.1%), ‘치수가 없어 기능성 브래지어 착용’(22.2%), ‘착용 후 가슴 형태 만족하지 않음’(14.3%)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여성들이 본인의 컵 사이즈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적합하지 않은 컵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착용 후의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고 집단2의 경우 비만가슴의 유형으로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이어에 대한 불만족을 살펴보면 집단1의 경우 ‘형태가 쉽게 변형됨’(43.4%)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률

을 보였고 ‘통증 느낌’(22.6%), 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위치가 부적절함’, ‘통증 느낌’ 항목이 22.6%로 같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집단2에서는 ‘통증 느낌’(39.7%), ‘형태가 쉽게 변형됨’(22.2%), ‘위치가 부적절함’(20.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가슴이 큰 집단이 와이어에 가해지는 무게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형태가 쉽게 변형됨’, ‘위치가 부적절함’의 항목들이 두 집단 모두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컵 사이즈에 따른 와이어의 차별화가 요구되어진다.

패드에 대한 불만족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슴

모양이 부자연스러움'(34.1%), '형태가 쉽게 변형됨'(31.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집단별로 살펴보면 집단1의 경우 '형태가 쉽게 변형됨'(37.7%), '가슴 모양이 부자연스러움'(22.6%) 순으로 응답하였고 집단2의 경우 '가슴 모양이 부자연스러움'(38.9%), '형태가 쉽게 변형됨'(29.4%) 순으로 집단1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집단1의 경우 53명 중 73%가 A컵으로 '형태가 쉽게 변형됨'에 높은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되며 비만 가슴으로 인해 컵의 형태부분에서도 쉽게 변형이 나타남과 동시에 컵의 크기가 커질수록 컵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부적절한 컵의 브래지어로 인해 착용 후 가슴의 외관도 부자연스러워짐을 고려하여 기능성과 적합도가 높은 브래지어 패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C컵 이상의 빅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빅 사이즈 브래지어 구입실태와 착용 실태 및 착용 불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브래지어 생산시 개선해야 할 점을 조사하여 기능성과 적합성이 높은 브래지어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브래지어 구매장소는 '백화점', '속옷전문매장',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고 구매시 중요요인으로는 '사이즈'와 '착용시 가슴 형태'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치수 부적합한 브래지어를 착용한 이유로는 '적합한 치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시중에 판매되는 브래지어 사이즈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브래지어 착용시 불만족도에 대해 적당한 치수를 구하기 어려워 작은 치수를 선택함으로써 불편하다는 항목과 그로 인해 유두점의 불일치나 체형보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항목이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판 브래지어 보다 내 가슴에 적합한 브래지어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항목에서 87.3%가 매우 그러하다는 응답을 하여, 자신의 체형에 보다 적합한 브래지어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컵의 크기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슴크기와 비만도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측정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치수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젓가슴 아래둘레는 줄어들었고 컵의 크기는 커진 것으로 보아 가슴이 큰 경우 컵의 치수보다는 젓가슴 아래둘레의 크기가 큰 제품을 구입해 착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불만족을 보면 모든 사이즈에서 '컵 사이즈의 불일치'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젓가슴 아래둘레의 불일치'부분에선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와이어에 대한 불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와이어에 대한 압박과 통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드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 가슴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컵의 형태가 쉽게 변형된다는 응답이 컵 크기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젓가슴 아래둘레에 적합한 컵의 크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 적합하지 않은 사이즈를 선택하는 함으로 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4. 브래지어 제조사 개선점을 묻는 문항에 대해 '다양한 사이즈의 개발'과 '가슴라인을 잡아주는 기능성'에 높은 응답률이 나타나 유방이 큰 체형들만을 위한 패턴의 설계가 필요하며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인 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컵의 크기별 브래지어 착용시 불만족도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 '적당한 치수를 구하기 어렵다'의 6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표준여성들의 컵의 사이즈가 B컵으로 변함으로 인해 다른 컵에 비해 B컵의 만족도는 큰 편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 컵 크기별 브래지어 치수, 와이어, 패드의 불만족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불만족을 보면 B컵 이하의 경우 '컵 사이즈의 불일치', '와이어의 형태변형', '패드의 형태변형' 항목에서, C컵 이상의 경우는 '컵 사이즈의 불일치', '와이어로 인한 통증', '부자연스러운 가슴 형태' 항목에서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의 경우 A컵과 B컵 위주로 브래지어를 생산함으로써 A컵 이하나 C컵 이상의 컵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빅 사이즈 브래지어의 생산시 다양한 사이즈의 개발이 요구되며 유방의 크기를 고려한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개발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C컵 이상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여성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져 젓가슴 둘레와 컵 사이즈의 실제 계측치가 아닌 설문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계

측을 통해 체형을 분류하고 체형에 따른 세분화된 패턴 개발과 연구에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여선. (1991). *기능적 브래지어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대회. (2000). *20대 비만여성의 유방형태와 브래지어 착용 실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원, 이미진. (2001). 20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생활과학연구*, 7, 69-78.
- 김영숙, 손희순. (1999).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브래지어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3(3), 27-37.
- 김정희, 이경화. (2001). 시판 브래지어의 착용감 및 착용효과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5(8), 1432-1443.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보고서*. 서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손희정. (2003). 입체재단패턴에 의한 브래지어 소재별 착용 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3), 447-457
- 여성 3.5% “몸에 안맞는 브래지어” 호소. (2006, 11. 8). *연합 뉴스*. 자료검색일 2007, 1. 15,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
- 임지영. (2004). 브래지어 착용감 개선을 위한 착용실태 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 455-460.
- 조은정. (2000). *20대 빈약 유방여성의 유방형태와 브래지어 착용실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성, 김옥진. (1993). 체형균형화를 위한 파운데이션 가먼트 제작에 관한 연구-장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2), 247-264.
- 한국 여성 가슴 체형 서구형을 변한다. (2006, 11. 14). *이패럴 뉴스*. 자료검색일 2006, 11. 1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가슴 큰 날씬女, 유방암 잘 걸린다”...하버드대 연구팀. (2005, 11. 21).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6, 11. 15, 자료출처 <http://www.chosun.com>